



모마

# 실바·모마, 남을까 떠날까



실바

## 여자배구 외인 빅2 거취 관심

여자 프로배구 2025-2026시즌이 GS칼텍스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외국인 거포와 아시아 쿼터 대어급 선수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자부 외국인 선수 중 재계약 여부에 가장 관심이 가는 선수는 GS칼텍스의 '쿠바 특급'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다. 실바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여자부 사상 한 시즌 최다인 1083득점 신기록을 작성하며 남녀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3년 연속 1000득점을 돌파했다.

V리그 입성 3년 만에 '볼 배구'에 나선 실바는 흥국생명과 단판 준플레이오프 42득점에 이어 현대건설과 플레이오프 1차전 40득점, 2차전 32득점의 괴력을 뽐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와 챔피언결정전에서도 1차전 30득점, 2차전 35득점, 3차전 36득점으로 포스트시즌 6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으

GS "실바와 재계약에 공감대" 도공, 모마·타나차 잡기 골몰 IBK 빅토리아 잔류 가능성 커

로 소속팀의 우승을 주도하고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GS칼텍스가 다음 2026-2027시즌에도 실바가 팀에 남아 주기를 바라는 이유다.

구단 관계자는 "재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재계약)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면서 "한국 무대에서 계속 뛰기에 대한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바는 챔피언결정전 종료 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아직 은퇴 생각이 없다. 2, 3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재계약 가능성에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도로공사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끈 외국인 거포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등록명 모마)와 아시아 쿼터 타나차 쑤샷(등록명

타나차)의 재계약 여부도 관심거리다. 도로공사는 모마, 타나차와 재계약을 통해 강소화로 이어지는 막강 삼각편대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모마는 정규리그 35경기에 나서서 948점(경기당 평균 27.1점)을 사냥하며 득점 부문 2위에 올랐다.

또 타나차는 시즌 막판 발목을 다치기 전까지 30경기에서 414점(경기당 평균 13.8점)을 수확했다.

모마는 재계약과 관련해 "시즌이 끝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타나차는 "해외를 포함해 다른 구단의 제안을 보고 나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IBK기업은행의 주포로 활약했던 맨작 빅토리아(등록

명 빅토리아)의 재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빅토리아는 이번 시즌 36경기(138세트)에 모두 나서서 835점(경기당 평균 23.2점)을 뽑아 득점 부문 3위에 올랐고, 공격 종합 4위(성공률 42.3%)에 랭크됐다.

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서는 현대건설의 정규리그 2위에 앞장선 자스티스 야유치(등록명 자스티스)의 재계약 가능성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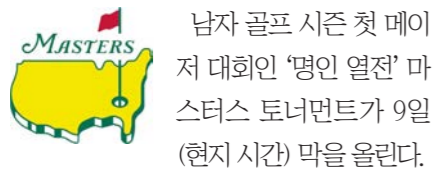
현대건설은 다음 2026-2027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선발이 '자유계약'으로 바뀌는 가운데 자스티스와 재계약 문제를 조만간 매듭지을 계획이다.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은 앞선 인터뷰에서 "자스티스와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팀과 맞는 선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계약에 무게를 뒀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의 일본인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는 V리그 잔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연합뉴스

## 마스터스 명인열전 내일 '티오프'

올해로 90회째... 91명 참가 '그린 재킷' 향한 불꽃 경쟁 세플러·디샴보·람 등 쟁쟁 韓 김시우·임성재도 출격



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9일 (현지 시간) 막을 올린다. 올해로 90회째를 맞이하는 마스터스는 나흘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565야드)에서 펼쳐진다.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매년 같은 코스에서 열리며, 출전 선수도 가장 적은 마스터스는 올해는 91명이 참가해 '그린 재킷'을 향한 경쟁을 벌인다.

총상금 규모는 대회 기간 확정된다. 지난해 총상금은 21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세계 골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하던 마스터스를 제패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해 화제를 모았고, 올해는 매길로이의 타이틀 방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11년 US오픈, 2012년 PGA 챔피언십, 2014년 디오픈과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세계랭킹 2위 매길로이는 마스터스와



(왼쪽부터) 미국의 캐머런 영, 스코티 셰플러, 샘 번스가 7일 오전(한국 시간) '2026 마스터스 토너먼트' 개막 전 연습 라운드 중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16번 홀에서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유독 인연이 깊다. 17번째 출전 끝에 트로피를 들어 올린 남자 골프 역대 6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마스터스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29번째 우승을 일궈낸 매길로이는 아직 30승을 못 채우고 있다.

올해는 4개 대회에 출전해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2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다. 이후 지난달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허리 통증으로 기권하고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선 공동 46위에 그친 것은 매길로이의 마스터스 2연패 전망을 밝히지 않게 한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2년 만의 마스터

스 정상 탈환을 노린다. 지난 시즌 6승을 쓸어 담으며 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던 셰플러는 올해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으로 통산 20승을 달성했으나 이후엔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셰플러도 최근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공동 24위)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공동 22위)에서 20위권으로 주춤했던 뒤 4주 만에 실전에 나선다.

PGA 투어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두 명의 우승 후보가 큰 몸집표 속에 마스터스에 나선다. 매길로이는 건강, 셰플러는 '폼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만만치 않은 추격자들이 대거 가세하며 마스터스는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와 임성재가 도전장을 낸다.

김시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마스터스에 출전했다가 지난해엔 나서지 못했고, 올해 2년 만에 복귀한다.

2021년 공동 12위가 마스터스 개인 최고 성적인 그는 이번 대회 직전 열린 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을 공동 10위로 마치고 샷 감각 조절을 마쳤다.

2020년 공동 2위, 2022년 공동 8위, 지난해 공동 5위에 오르는 등 메이저 대회 중 유독 마스터스에 강한 면모를 뽐내 온 임성재는 7년 연속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손흥민 '라운드 베스트11' 선정

### MLS 최초 전반 4도움 기록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MLS) 역사상 최초로 전반에만 4도움을 기록한 손흥민(33-LAFC)이 올 시즌 처음으로 라운드 베스트11에 뽑혔다.

손흥민은 7일(한국 시간) MLS 사무국이 발표한 2026시즌 MLS 6라운드 베스트11에서 공격수 한자리를 꿰차다.

MLS가 '팀 오브 더 매치데이'(Team of the Matchday)라는 이름으로 선정하는 라운드 베스트11에 올 시즌 손흥민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6라운드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셨다.

손흥민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랜도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57분을 뛰면서 전반에만 무려 네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LAFC의 6-0 대승을 이끌었다.

전반 20분과 23분, 28분에 드니 부앙가의 헤트트릭을 돕고 전반 39분 세르지 팔렌시아의 추가 골까지 배달했다. 게다가 0-0으로 맞서 있던 전반 7분 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수비수 다비드 브레갈로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등 LAFC의 전반 5득점에 모두 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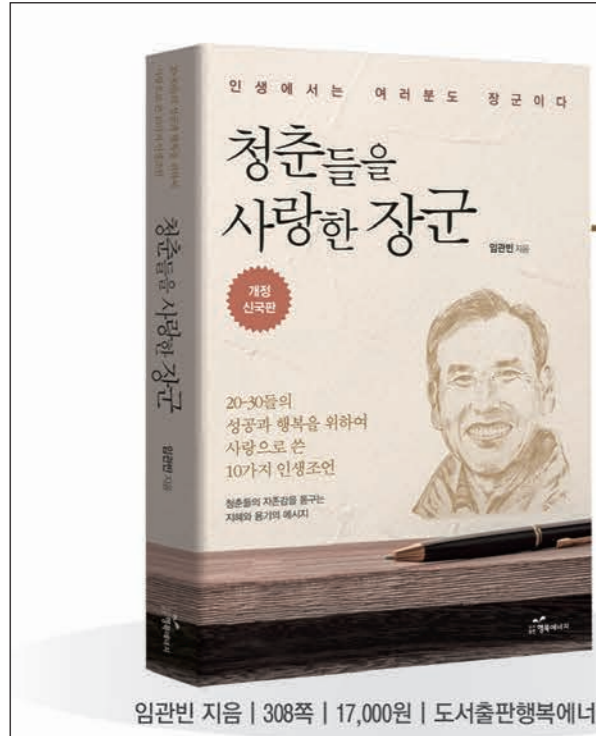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4도움을 기록한 것은 프로 데뷔 후 처음이다.



손흥민은 7일(한국 시간) MLS 사무국이 발표한 2026시즌 MLS 6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게다가 MLS 역사에서 전반 또는 후반 45분 동안 4도움 이상을 올린 선수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 이어 손흥민이 두 번째일 정도로 값진 기록이다. 메시는 후반에만 5도움을 기록했다.

3-4-3 포메이션으로 선정된 6라운드 베스트11에서 손흥민은 팀 동료 부앙가, 콜롬버스 크루의 웨삼 아부 알리와 함께 공격진을 구성했다. 마크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6라운드 최우수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입관본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